



Seoul

주한스웨덴대사관  
보도자료

엠바고: 11 월 27 일(금) 오전 8 시

##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2020

---

### 2020 년 12 월 1 일, 제 1 회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개최

주한스웨덴대사관은 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탐구를 증진하기 위한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최한다. 12 월 1 일 온라인 진행되는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올해의 노벨상 과학, 경제, 문학 수상자의 연구에 대한 3 개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2020 년 12 월 1 일,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2020 년 노벨상 각 분야별 연구 및 업적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과학, 경제학, 문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혁신가이자 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물리학 · 화학 · 생리학 및 의학 · 문학 · 평화의 다섯 부문에 걸쳐 수여했으나 1969 년 경제학상이 새로 추가되어 총 여섯개 부문에서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스웨덴 4 개 우수 대학 (룬드대학교,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예테보리대학교, 우메오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학번역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한국은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세계 가장 혁신적인 국가중 하나이다. 노벨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다. 올해 노벨상에 대한 주제로 한국 대중에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로 양국간 과학기술 및 인문학의 연구 개발 및 교육 협력에 대한 대화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과학 심포지엄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2020 노벨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 연구를 통해 인류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으로 올해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생물학, 블랙홀, 바이러스 정복기’에 대한 양국 석학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최근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노벨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자 및 일반대중에게 모두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제 심포지엄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2020 노벨경제학상 연구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적 재화인 모바일 데이터와 관련 주파수 가격을 책정하는 경매이론에 대해 토론한다. 김혜숙 이화여자대학 총장은 “한국 대학을 대표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올해 최초로 열리는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과학, 문학, 경제학 분야에서 이화 혁신의 기록과 역량이 이번 행사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학 심포지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202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의 세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순수문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스웨덴한림원이 노벨상 운영 초기부터 인문분야의 유일한 상으로

문학상을 제정한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행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문학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노벨상 과학, 경제학, 문학중 관심있는 분야 사전등록 (<https://nobelmemorialprogram.kr/registration/>) 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실시간 질의와 응답에 참여할수 있다.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공식웹사이트에서 생방송 시청, 연사 및 일정에 대해 확인가능하다.  
[www.nobelmemorialprogram.kr](http://www.nobelmemorialprogram.kr)

.....

언론 문의:  
주한스웨덴대사관  
공공외교실 [Infosweden.seoul@gov.se](mailto:Infosweden.seoul@gov.se)  
02-3703-3800

별첨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2020

<b>과학세션</b> <b>13.30-15.30 (KST) 05.30-07.30 (CET)</b>	
<b>개회식</b>	
<b>Host</b> 주최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b>Partners</b> 파트너	Min-koo Han, President of Kore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Hans Adolfsson, President of University of Umeå 한스 아돌프손 우메오대학 총장 Sigbritt Karlsson, President of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시그브리트 칼손 스웨덴왕립공과대학 총장 Eva Wiberg, President of University of Gothenburg 에바 비베뤼 예테보리대학 총장 Torbjörn von Schantz, Vice-Chancellor of Lund University 토비온 폰 샨스 룬드대학 총장 Heisook Kim,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b>의학분야</b>	
<b>발표자</b>	Mathias Uhlén, Professor,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마티아스 올렌 스웨덴왕립공과대학 교수 Yu-Kyoung O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오유경 서울대학교 약학대 교수
<b>물리분야</b>	
<b>발표자</b>	Anna Delin, Professor,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안나 델린 스웨덴왕립공과대학 교수 Soonkeon Nam,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남순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b>휴식</b>	“Come Collaborate with Sustainable Sweden” A promotion Video from the Swedish Embassy in Seoul 스웨덴대사관 홍보영상 상영
<b>화학분야</b>	

발표자	Sven Lidin, Professor, Lund University 스벤 뢰딘 룬드대학 교수
	Hyongbum Henry Kim, Professor, Yonsei University 김형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맷음말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
사회자	Anders Hektor, Science & Innovation Counsell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안데르스 헥토르 주한스웨덴대사관 과학혁신참사관

<b>경제세션</b>	
<b>16.00-17.30 (KST) 08.00-09.30 (CET)</b>	
<b>개회식</b>	
주최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파트너	Heisook Kim,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Hans Adolfsson, President of University of Umeå 한스 아돌프손 우메오대학 총장 Sigbritt Karlsson, President of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시그브리트 칼손 스웨덴왕립공과대 총장 Eva Wiberg, President of University of Gothenburg 에바 비베뤼 예테보리대학 총장 Torbjörn von Schantz, Vice-Chancellor of Lund University 토르비에른 폰 샨스 룬드대학 총장
<b>발표</b>	
발표자	Olof Johansson Stenman, Professor, University of Gothenburg 올로프 요한손 스텐만 예테보리대학교수 Byung-il Choi,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b>패널토론</b>	
<b>사회 : 안데르스 헥토르 참사관</b>	
토론자	Olof Johansson Stenman, Professor, University of Gothenburg 올로프 요한손 스텐만 예테보리대학 교수

	Byung-il Choi,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Insil Yi,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맺음말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
사회자	Anders Hektor, Science & Innovation Counsell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안데르스 헥토르 주한스웨덴대사관 과학혁신참사관

<b>문학세션</b> <b>19.00-20.30 (KST) 11.00-12.30 (CET)</b>	
<b>개회식</b>	
주최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파트너	Sa-in Kim, President of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Hans Adolfsson, President of University of Umeå 한스 아돌프손 우메오대학 총장 Sigbritt Karlsson, President of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시그브리트 칼손 스웨덴왕립공과대학 총장 Eva Wiberg, President of University of Gothenburg 에바 비베뤼 예테보리대학 총장 Torbjörn von Schantz, Vice-Chancellor of Lund University 토르비에른 폰 샨스 룬드대학 총장 Heisook Kim,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b>발표</b>	
발표자	Annelie Bränström-Öhman, Author and Professor, Umeå University 아넬리 브랜스트룀 에만 우메오대학 교수 Sung Ho Yoo, Professor and literary critic, Hanyang University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겸 비평가
<b>패널토론</b> <b>사회 : 안데르스 헥토르 참사관</b>	

토론자	<p>Annelie Bränström-Öhman, Author and Professor, Umeå University  아넬리 브랜스트룀 에만 우메오대학 교수</p> <p>Sung Ho Yoo, Professor and literary critic, Hanyang University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겸 비평가</p> <p>Haeun Shim, Editor-in-chief, EunHaengNaMu Publishing  심하은 은행나무출판사 해외문학 편집장</p>
맺음말	<p>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 대사</p>
사회자	<p>Anders Hektor, Science &amp; Innovation Counsellor, Embassy of Sweden in Seoul  안데르스 헥토르 주한스웨덴대사관 과학혁신참사관</p>